

이 자료는 2023년 9월 27일(수)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서울특별시 시장 동정자료



■ 매수 : 2매 ■ 사진 :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(press.webhard.co.kr) ID/PW:press1

담당 :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

언론담당관	2133-6205	신문팀장	2133-6207	담당자	2133-6253
이준형		천세은		정수민	

오세훈 시장, 운행 한 달 5천명 돌파하며 효과 확인한 '서울동행버스' 관련 은평차고지 방문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(수) '서울동행버스'가 향후 추가 운행될 예정인 은평공영차고지(은평구 수색로24길 19)를 방문, 운수사 관계자 및 기사들을 만나 원활한 서울동행버스 운영을 당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.
- '서울동행버스'는 경기도에서 서울 시내로 출근하는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8.21.(월) 2개 노선(화성동탄, 김포 풍무) 운영을 시작, 9.22.(금)까지 한 달간 총 5,34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오 시장은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 대중교통 불편을 덜어주는데 효과가 확인된 '서울동행버스'의 신규 노선을 추가 발굴, 오는 11월부터 2차로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편리한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및 운행 서비스 개선에도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다.
- 시는 서울동행버스 운행 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▲파주 운정 ▲고양 원흥 ▲양주 옥정신도시 ▲광주 능평, 총 4개 노선을 추가하여 오는 11월 중으로 운영을 추가 개시할 계획이다.

- 특히 '서울동행버스' 추가 노선을 운행하게 될 선진운수를 비롯해 보광교통, 유성운수 등 운수사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정비동으로 이동해 안전한 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정비직원도 격려할 계획이다.
- 또 서울동행버스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귀성객 등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내·광역버스 운행에 나서는 운전기사들을 만나 명절 인사도 전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현장에서 버스 운영을 포함하여 연휴 동안 종합적으로 추진될 '추석 특별교통대책'과 관련한 브리핑을 청취,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길을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당부한다.
- 시는 이번 연휴 기간 중 ▲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및 장애인 성묘 버스 운행 ▲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(서울 구간) 운영시간 연장 ▲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등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.

■ 서울동행버스 확대 관련 현장방문 일정

구 분	시 간		주 요 내 용
사무동 및 정비동 방문	10:00~10:15	15'	· 사무·정비동 운수사 관계자 및 직원 격려
동행버스 설명 및 추석 특별교통대책 청취	10:15~10:30	15'	· 서울동행버스 설명 및 운수종사자 격려 ·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브리핑

※ 관련 부서 : 버스정책과 노선팀장 박흥식 ☎2133-2281